



면목4동



면목7동



묵2동



망우3동

면목2동 취미로 하던 수공예, 이젠 도도 벌어볼까?

면목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자)는 지난 4월 11일 면목2동 주민센터 2층 수공예공방에서 면목2동 마을기업 『한지랑 칠보랑』개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면목2동 주민자치위원회, 한지·칠보공방 회원,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한지랑 칠보랑』현판 제막식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한지랑 칠보랑』은 수공예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수익은 물론, 주부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생력을 갖춘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면목4동 우리 골목 깨끗이 하는 날

면목4동 통장협의회(회장 최정임)는 '우리 골목 깨끗이 하는 날'을 정하여 지난 3월부터 매일 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통장, 반장, 깔끔이봉사단원,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전체 32개통을 10개조로 나누어 조별 월 2회씩 참여하고 있다.

‘우리 골목 깨끗이 하는 날’은 오는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쾌적한 동네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원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면목7동 『이학면목』경로잔치 개최

지난 3월 22일 관내 『이학면목』(대표 윤희원)에서는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7동의 어르신 200분을 모시고 한정식을 대접하였다.

『이학면목』은 2005년부터 매년 봄을 맞이하여 관내 홀몸노인 및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른공경의 모범사례로 타업소의 본이 되고 있다. 이날 윤희원 사장은 앞으로도 매년 어르신을 초대하여 식사대접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묵2동 『성모마음 정신과 의원』의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

『성모마음 정신과 의원』(원장 이정국·박주미)은 지역사회 나눔 서비스의 첫 프로젝트로 우울감이

있는 여성을 위한 『유산소 댄스와 요가명상』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성모마음 정신과 의원』은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망우3동 손뜨개로 나누는 사랑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명수)는 지난 4월 8일 주민(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정을 나누며 수익금으로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손뜨개 동아리 반』을 개설하였다.

『손뜨개 동아리 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회원들이 만든 친환경 수세미, 목욕타월, 목도리 등을 망우3동 녹색 나눔터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에는 목도리, 스웨터 등을 만들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할 계획이다.

중랑구자원봉사센터의 우수봉사단을 소개합니다

『다솜봉사단』의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며 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봉사단들이 이 봄 중랑구를 아름답게 꽃피워간다. 오늘 우리는 중랑구 50여 개의 봉사단 중에서 『다솜봉사단』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2010년 5월 공무원, 교사 등 30여 명의 직장인들로 결성된 『다솜봉사단』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홀몸 어르신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집수리 봉사)를 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망우본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를 해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그들의 땀방울과 함께 희망과 따뜻한 나눔을 선물해 주었다. 이밖에도 신내노인요양원 봉사, 찾아가는 쌀과 밑반찬 배달 등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나눔의 향기를 끝없이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꽃으로서 어려운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북돋아 주는 『다솜봉사단』! 그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다른 나눔의 의미와 숭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열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랑구자원봉사센터 ☎ 2094-1615